

씨름도 옛장수 아저씨의 비밀

서울 봉현초등학교

5학년 최율이

“오늘은 조선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작가 김홍도의 작품 ‘씨름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화요일 1교시는 역사다. 선생님께서 오늘은 씨름도에 대하여 알아본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점
점 눈이 감긴다.

“울이야! 울이야! 일어나봐!”

갑자기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일어났다. 선생님은 열심히 수업을 하고 계셨다. 친구들도 수
업을 듣는 중이었다. 주변을 둘러봐도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기야!여기!’

다시 한 번 소리가 들려서 가우뚱 하고 있었다. 그 때,

“책을 봐봐!”

라는 소리가 들렸다. 교과서를 보니 씨름도 그림 안에 있는 옛장수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잠결에 내가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있나 해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을 떠보니 시끌벅적한
시장이 내 앞에 펼쳐졌다. 나는 학교에 있었는데...여긴 어디지? 사람들이 다 한복을 입고 있었는
데 축제라도 하나?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울이야!”

“깜짝이야! 아..아저씨 왜 가위를 2개나 들고 계세요?”

“가위라니? 아~옛을 자를 때 쓰는 가위야, 놀라지마렴.”

다시 보니 아저씨가 들고 있는 넓은 판에 맛있어 보이는 옛이 가득 놓여 있었다.

“아...그렇구나...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무슨 행사나 축제라도 하나요?”

“행사? 그게 뭐니? 지금은 씨름을 하는 중이란다. 그리고 여기는 시장이야.”

나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 내가 오게 된 곳은 조선시대였고, 믿을 수 없지만 눈 앞에 있는 아저씨는 그림 속에서 날 부르던 그 옛장수 아저씨였다. 옛장수 아저씨가 철컹철컹 가위 소리를 내며 엿을 팔 동안 나는 시장을 구경했다.

“맛난 국밥 한 번 잡쉬보시오~”

“청에서 들여 온 비단이오~”

시장은 시끌벅적한 소리들이 넘쳐났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옛장수 아저씨께서는 엿을 다 팔고 돌아오셨다.

“아저씨, 궁금한 게 있는데 저를 어떻게 이 곳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아저씨께서는 내 물음에 영문 모를 웃음만 지으시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잠시 쉬어 가자구나.”

아저씨네 집으로 가려면 이 언덕을 넘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런 나를 알아차리셨는지 아저씨가 넓은 바위를 가리켰다. 너무 힘들어서 바위 위에 벌렁 드러누웠다.

“아저씨, 그런데 하늘이 참 맑네요! 구름도 많이 끼고, 어제까지 미세먼지 심했잖아요.”

아저씨께서는 황당해하셨다.

“미세먼지? 그게 뭐니? 바람 이름이야? 어제는 오늘보다 날씨 좋았고 이틀 전도 그랬는데.”

나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 생각했다.

‘맞다, 지금은 조선시대지...조선시대에는 늘 하늘이 맑고 공기도 좋았구나...확실히 달라.’

아저씨와 걷다 보니 곧 밤이 되었다.

“자~다 왔다. 우리 집이란다.”

옛장수 아저씨의 집을 들어가보니 어떤 아주머니가 서 계셨다.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 아이는 누구예요?”

“아~! 내가 아는 아이예요.”

아주머니께서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더니 말하셨다.

“안녕? 윤이랑 훈이에게 좋은 누이가 생겼네~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렴.”

아주머니의 따뜻함이 우리 엄마와 비슷한 것 같았다. 옛장수 아저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보니

나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에 한 명과 또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아아가 있었다.

“어머니? 저 언니는 누구예요?”

나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아가 말하였다.

“아~아버지가 아는 아이란다.”

“아~그렇구나. 언니 안녕!”

내가 옛장수 아저씨의 딸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다.

“밭에서 방금 따 본 상추란다. 차린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소독해야 하지 않아요? 먼지가 많이 쌓였을텐데.”

나는 물기가 없는 상추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먼지는 무슨...이건 엄청 깨끗하단다.”

“아...”

자꾸만 이 곳이 조선시대라는 걸 까먹었다. 아주머니께서는 차린 게 없다고 하셨지만 맛있는 음식들이었다. 침대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아침 해가 엄청 따듯했다.

“아저씨, 하늘이 정말 예뻐요. 구름 한 점 없고...”

아저씨께서는 나를 보고 웃으셨다.

“제가 사는 하늘도 늘 맑고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저번 달에는 하늘이 노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생각했다.

‘환경만 잘 지켜냈다면 지금의 하늘도 더 깨끗했고 사람들의 건강도 많이 나빠지지는 않았을 텐데...앞으로라도 많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오늘은 아저씨께서 옛 파는 날이 아니어서 쉬고 계셨다. 나는 잠시 마당을 둘러 보고 이웃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보고 길가도 쳐다보았다. 길가에는 맑은 공기를 오염시킬 자동차 같은 건 없었고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소리 대신 예쁜 웃음소리만 가득했다.

“우와, 신기하다.”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왔다. 나는 옛장수 아저씨께 가서 말했다.

“아저씨, 저 원래 시간으로 돌아갈래요.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지내면서 생각해보니 원래로 돌아가서 맑은 공기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저씨께 다급하게 이야기를 했다. 아저씨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나에게 말을 하셨다.

“원래로 돌아가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어. 오직 너만 할 수 있어.”

“네?!”

나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 놀랐다.

“이곳에 부른 건 나지만 돌아가는 건 너만 할 수 있어.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다면 이 곳에 와서 지내다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곳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 보았다.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곳?’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아저씨와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쉬어가던 곳이 생각났다.

“그래, 그곳이야! 아저씨, 저희가 처음으로 만났던 날 그 때 걸어가다 쉬어가던 길로 가요!”

해가 저물 때 즈음 아저씨와 그 길에 도착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답은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초조해 하다가 우연히 하늘을 보게 되었다.

“그래! 하늘이야, 맑고 깨끗한 그 하늘!”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다.

“쿠구구궁”

그 소리는 하늘과 땅을 흔들었고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아저씨께서는 나에게 종이를 건네주셨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

“딩동댕동”

“어...? 여기는 어디지?”

옛장수 아저씨가 건네주신 종이에에는 아저씨가 사실 나보다 훨씬 미래에서 살던 사람이었다고 적혀있었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공기가 더 나빠서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아저씨는 공기

를 바꾸어 보려고 하다가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조선시대로 왔던 것이었다. 조선시대에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해결책을 찾았는데 이미 가족이 생겨서 아저씨는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익숙한 곳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신을 차려보니 학교였다.

“어...? 꿈이었나...”

하지만 이건 결코 꿈일 수 없다. 내가 손에는 아저씨가 건네주신 종이가 있었고 옷에는 흠이 조금씩 묻어있었다. 꿈 같은 일이 지난 이후 나는 하늘에 관심이 많아졌다. 조선시대처럼 하늘이 맑았으면 좋겠고 공기도 맑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기계의 힘으로 나를 불렀다면서 해결책을 적어 줄 테니 꼭 공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셨다. 옛장수 아저씨 덕분에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맑은 공기가 더 많이 생겨나서 맑은 하늘이 잘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옛장수 아저씨, 감사합니다!”